사룡 지모의 절세미인 티아마트

클랜/ 데모닉 퓨전(암속성 용종 3체)

원전: 바빌로니아

클래스: 9

속성: 냉기 엑체

성향: 세인트 카오스

괴기한 6개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촉수를 두른 보라색기조의 하늘색+칠흑빛의 괴사이자 염수의 여신

인간체의 모습은 검보랏 빛 단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로 취향으로 구속복에 가까운 특수한 검은 속옷과 드레스를 착용하며 전부 검은 진흙으로 만든것이다. 인간체에서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 염수를 자신의 숨결과 조합해 성리에너지를 발산 시킴으로서 다양한 신족을 발현했으나 오히려 자식들에게 배반당한 괴물들의 어머니 복수에 사무쳐 새로운 자식인 12마물 부족의 시초들을 창조하여 복수하려 했으나 단한마리의 용 마르두크가 뿜은 그물과 화살에 의해 쓰디쓴 참패를 당하여 육체가 대지의 일부로 산산조각 나고 영혼은 어떤 구슬에 봉인되었다

그렇기에 미나코에 의해 부활할 무렵에는 어린시절의 모습인 촉수가 없는 형태였고 서서히 마력을 되찾아가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다크 플레어): 자신의 세포이자 12부족의 근원인 성배의 진흙을 강하게 발포하는 기술 염속성이 아닌 액상속성임에도 네이팜위력분의 폭발을 발휘한다 이 진흙자체를 더욱 강하게 모아서 본래의 형태를 모아가는 구조이다.

비스트의 긍지: 여신의 눈에는 남편 단 한사람 빼고는 걸리적거리는 평행의 존재로 보이는 게 인류이다 진흙을 완벽히 모은 시점에서 그녀의 눈에는 천국의 차원을 포함하여 그녀의 세계로 회귀시키려는 성격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편과 더불어 비스트의 자질을 알려주는 예